

2-33. 단감원에서 두 가지 노린재의 발생소장

강창훈, 이규철, 강창현, 박정규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농생물학과

노린재류는 단감 과실을 흡즙함으로써 어린 과실을 낙과시키거나 성숙한 과실의 상품가치를 없앤다. 이들 노린재류는 단감재배의 최대 해충으로서 재배 농민의 73.5%가 가장 중요 해충으로서 노린재류를 들고 있다 (이동운 등, 미발표 자료).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수은유아등을 진영, 산청, 사천, 진주의 4곳에 설치하여 단감원의 주요 노린재에 속하는 썩덩나무노린재와 갈색날개노린재의 발생 소장을 2000년과 2001년 동안 조사하였고, 한편으로는 갈색날개노린재의 집합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벚나무와 아카시아림에서 갈색날개노린재와 썩덩나무노린재의 발생을 조사하였다.

단감원에서 썩덩나무노린재는 8월 중순(2000년) 또는 8월 상순(2001년)에 단 1회의 발생 peak를 나타내었다. 갈색날개노린재는 뚜렷한 peak가 없이 7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발생하였다. 이들 두 노린재 모두 6월 말 이전과 9월 중순 이후에는 단감원에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두 노린재가 벚나무와 아카시아림에서는 4월 하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노린재가 왜 6월말 이전까지는 단감원에 발생하지 않는지는 앞으로의 흥미있는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